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 장 31-35 절

2021 년 3 월 21 일

주기도문 중심으로 은혜를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초점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제 우리의 삶에 초점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1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으로 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Giver 그리고 우리는 받는 사람들 Receiver.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밥 맛을 잃어서, 시름 시름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김치 찌개를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왕이 기뻐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맙네. 상을 주려고 하네” 요리한 사람 이야기가, “아이쿠 임금님,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저는 받은 배추를 가지고 김치 만들고 찌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배추 갖다 준 사람이 상을 받아야 합니다.” 배추 갖다 준 사람을 불러서 상을 주려고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아닙니다. 저는 채소 농장에 가서 배추 가져 왔을 뿐입니다. 배추 키운 농부가 받을 상입니다. 농부를 불러라.. 농부는, 뭐라고 하지요? “임금님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쬐는 적절한 햇볕과 비가 있어서, 배추가

자랐으니, 햇볕과 비를 내려 주는 이에게 감사 드리고 상을 드려야 합니다.” 누가 햇볕과 비를 적절하게 주었느냐? 임금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이란 단순히 빵, 음료 음식 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 거주할 집도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이웃도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합니다. 나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운행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명들입니다. 사실, Dependent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는, Independent 한 것이 독립하는 것이 혼자 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들 합니다. 혼자 스스로 자기 앞가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가르침이 담겨있습니다.

1

Give **US OUR** daily Bread.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me my daily Bread 가 아닙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기 주의, 자기 중심 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가르침이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소원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도는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고민, 아픔 그리고 고통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 혼자만 많이 소유하고, 내 가족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내 가족만 풍족하게 살게 해 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삶, 내 가족에게, 내 교회, 내 민족, 내 나라.. 국한되면 안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 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자기와 피부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자기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남의 가족, 남의 민족, 남의 나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틀란타에서, 한인 여성이 6 명, 찜질방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를 China Virus 라고 하면서, 아시안들을 혐오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작년 3 월부터 점점 많아 지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와 다르다고, 나의 문화와 나의 언어와 나의 종교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폭력을 휘둘리고 죽이기 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돌보아 주며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임을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1

셋째로,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이 되게 해 보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지요? 그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떡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육적 생명, 육신을 위한 떡 뿐 만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 떡도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떡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6 장 48-51 절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50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영적 생명을 살리고, 만족시켜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이 살 수 있게 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밥 없이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 없이 우리의 영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 우리를 영을 살리십니다. 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부하신대로 먹습니다. 상징적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떡이 몸에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떡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정신에 동화되고, 그 분처럼 살아갑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뭔가에 허기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진 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바깥입니다. 무엇으로 허기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Hungry for .. 돈, 명예, 권력, 인기로 채우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 받고 싶은 욕망에 허기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허기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는, 허기진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나, 명예, 인기, 인정 받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든든히 부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또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살고 있어 참 행복합니다. 작년 4 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니,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고요한 가운데 머무는 시간. 이 거룩한 시간에 하늘의 양식, 하늘로 부터 온 떡을 맘껏 받아 먹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하는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Give us our daily bread. 일용할.. 매일 필요한 양식... 하루 하루 살아갑니다. 매일 매일 생명의 떡을 먹으며,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여정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